

강정우군 사건은 나라 전체를 경악시킨 충격 그 자체였다. 아무리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아버지가 자식의 손가락을 잘라 보험금을 태내려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7월에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가 요구르트에 농약을 타 자식을 숨지게 한 사건까지 있었다.



부모는 다섯 가지로 자식을 경친해야 한다. △자식을 제어하여 나쁜 짓을 하지 않게 할 것 △착한 것을 가르쳐 줄 것 △학과 도를 가르쳐 줄 것 △좋은 머리를 구할 것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다. <장아함 선생경>

천신이 이번에는 모양이 같고 크기도 비슷한 딸 두 필을 가져와서 물었다. "어느 것이 어미요, 어느 것이 새끼인가?" 대신(大臣)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었다. "풀을 주어 먹게 해 보아라. 어미는 반드시 풀을 밀어 새끼에게 줄 것이니라." <잡보장경>

인론

“서로 공경하며 고락 함께하라”

“무엇을 가족이라 말하는가? 선남자가 집에 살면서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에는 뜻을 모아 같이하는 것을 가족이라 말하느니라.” <잡아함경>

친족끼리 서로 친근하고 공경하면서 서로 돕고 고락을 함께 하도록 하면 이것으로 북방(北方)이 안온할 것이니, 이것이 북방에 대한 예법이라. <육방예경>

부자·형제·부부·친족간에 항상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여 질시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안색은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해 주어야 한다. <무량수경>

친족의 그들은 시원하다. 석가 종족은 부처

인 나를 낳았으니 석가족은 모두 나의 가지요 일이라. 그러므로 나는 이 나무 밑에 앉았노라. <증일아함경>

선인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가없이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을 사랑하는 것이다. <출요경>

능히 신앙을 지켜 가정이 화평하고 편안하면, 현세에 경사가 있어서 복이 저절로 찾아오게 마련이다. 복이란 행위에서 오는 과보일 뿐, 결코 신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다. <이반문사불길홍경>

부모를 잘 봉양하고, 처자를 아끼고 보살피며, 올바른 생업에 정진하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대길상경>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생활공동체에는 그 자체를 밝혀 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한다. 진실로 화합이아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다. <대반열반경>

세상의 온갖 바르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과정을 보자. 여러 바르지 않은 종류의 일과 여러 바르지 않은 부류의 일이 다 마음이 앞장서 인도하는 탓으로 일어났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나쁜 마음이 일어나면 악하고 바르지 않은 일들이 다 뒤를 따라 생기는 까닭이다. <본사경>

차라리 날카로운 칼날로 팔을 찌르고 살을 베든가, 불 속에 스스로 몸을 던질지언정 삼가 악을 행하지 말며, 차라리 수미산을 머리 위에 이어 그 목숨을 잃든가, 대해에 몸을 던져 고기·자라에게 먹힐지언정 삼가 악을 짓지 말도록 하라. <인욕경>

열린마당

금강산 관광

애초 25일 예정이었던 금강산 관광선 출항이 다음 달로 미뤄진 가운데 금강산 관광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관광수입이 군사비로 쓰이는 것을 막을 대책도 없이 금강산 관광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고액의 대북 지원요금,

많은 행동규제 등 관광 내용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은만큼 일단 시작해놓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계획대로의 추진을 바라는 의견도 많다. 금강산 관광에 대한 불교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교류여건 미성숙 출항보류 마땅

지성 <태고종 총무부장>

결론부터 말하자면 금강산 관광은 보류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인연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금강산 관광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국민정서에도 위배되는 처사라 아니할 수가 없다. 우리는 지금 6·25 동란 이래 최악의 경제난국에 처해 있다. 무역적자는 자꾸만 늘어나고 실직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 모두가 생활고와 실업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데, 대규모·호화관광을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다음은 관광에 의해 지출되는 우리의 돈이 자칫 이적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가 있다.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무력강화에만 집중하고 있다. 우리에게서 관광수입으로 벌어들인 돈을 전력강화와 무기개발에 쓰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다.

끝으로 금강산 관광이 통일의 촉매작용 또는 물꼬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작각에 불과하다. 통일은 이런 방법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통일은 이해타산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 하나가 된다는 큰 틀과 큰 차원의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행약관등 불리 신중하게 추진

혜인 <불심사 주지>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금강산의 전경을 담은 화보라든가, 금강산 갈 때 입을 옷 등 여러 측면에서 금강산 관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사실 이산가족 1세대들에게는 꿈에도 그리던 고향방 이복을 받아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을 보면 남북화해의 불결을 유도해내는 역할보다는 상업적 논리를 더 많이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에서 한꺼번에 많은 돈이 금강산 특수에 묶이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금강산 관광 자체는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의 새로운 교류형태로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금강산 관광은 불분명한 요금책정으로 관광비용이 턱없이 비싸고, 여행약관이 불리하게 이뤄지는 등 이산의 아픔을 금강산 관광으로 달래보려는 이들에게 또한번의 아픔을 줄 수도 있다.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번 금강산 관광이 일시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을 위한 전초작업의 하나로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다.

남북대화 재개에 긍정적 역할할듯

송석구 <동국대 총장>

IMF체제 편입 이후 대북경협 사업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금강산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정기적인 직접 왕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 당국자간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뤄져 남북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김정일 체제의 공식 출범에서 나타난 한·미·일 대북 정보능력의 심각한 허점이 보여주듯이 폐쇄적이고 돌출적인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는 인공위성 등 첨단장비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화를 통하여 돌출적인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이다. 만약 금강산 개발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할 경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대북 감정을 더욱 악화시켜 남북경협은 물론 햇볕론과 정경분리 정책은 중대한 난관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이번의 금강산 관광은 우리 정부의 정경분리 정책의 첫 시범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일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이벤트성 사업이 아니라 통일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입국의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로 가는 첫 발 북한이해 계기로

정해숙 <前 전교조 위원장>

우리 사회는 요즘 유람선을 타고 금강산에 가는 꿈에 부풀어 있다. 실상 민들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심정을 그 누가 감히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적십자 정신을 불러 일으킨 앙리 뒤낭은 전쟁터에서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꺼져가는 생명 모두에게 의술을 펼쳤고 오히려 병도 적국 환자의 입에 먼저 넣어주는 등 지고한 생명존중의 도리를 실천했다. 우리는 하루빨리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버리고 금강산을 포함한 북한의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따뜻한 가슴을 안고 유람선을 타도록 노력해야 한다.

통일운동은 서로를 존중하는 운동이며 진정한 평화운동이다. 남북이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물질이 풍요하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진리를 모르는 것이 참으로 가난한 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 실행문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북한에 대한 어떤 격정도 한반도 남북관을 가로지르고 있는 군사분계선의 존재보다 클 수 없다.” 군사분계선은 남북 위협의 상존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의 외화벌이보다, 미사일보다 두려운 대상이라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이 군사분계선을 허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금강산 관광선의 첫 출항을 앞두고 금강산 관광에 대한 찬반이 팽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금강산 관광객을 실어내는 '현대 금강호'.

금강산행 비용 평균 130만원 일부 반대여론... 정부 “반드시 성사”

지난 6월 15일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의 ‘금강산 관광’ 발언은 온국민을 흥분케 했다. “이르면 올 가을부터 금강산 관광이 가능할 것이다.” 이후 현대와 북한, 그리고 우리 정부와의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남으며, 요금도 북한에 지불할 3백 달러를 포함해 등급에 따라 97만원~3백만원선으로 잠정 결정됐다. 관광객 비율도 실항비를 포함한 경로요금 50~60%, 일반인 20~40%, 외국인 등교포 10~15%로 정했다. 2천 명이 탈 수 있는 배도 들어왔다. 마침내 25일 금강산 관광선의 첫 출항을 예정했다.

출항 연기의 가장 큰 이유는 관광요금에 최종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광객 모집일정이 순연돼 첫 출항일이 이달 말이나 10월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외향면허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부가세 등이 부과돼 관광비용이 현대가 책정한 평균 1천달러보다 2백~3백달러 이상 올라간다. 그렇지 않아도 비싸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현대는 내향면허 발급을 바라고 있다.

또 일부 정치권의 금강산 관광사업 보류 주장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나라당 조영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90명은 9일 강인태 통일부장관에게 금강산 관광구역내에 이산가족 만남의 장 설치 △대북 지원요금 인하 등이 선결될 때까지 추진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금강산 관광사업은 정부의 1백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이니만큼 오해가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금강산 관광사업의 의미와 효과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금강산 관광의 추진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비디오 촬영 불허, 지정장소에서만 사진촬영, 관광요금의 전액 현금결제 등 까다로운 관광수칙과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3백불에 이르는 금강산입산료와 장전향 사용료도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다. 정성은 기자 (swjung@buddhopia.com)

왕토희떡돌기계

건강, 장수주택 왕토희집에 희소식!! 왕토희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품을 떡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떡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왕토희 흙떡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사용기간 5년교육후 생산 여성, 노약자등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이외규격은 별도주문생산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편리한 생산, 저렴한 가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왕토희마을

■ 왕토희관련 전문회사 봉송 왕토희마을 소개

왕토희주택시공, 토굴시공, 찜질방시공 및 구름시공, 기타왕토희관련제품을 생산하며 왕토희학교를 개설하여 왕토희주택시공법등 다양한 집 짓기교육을 매월 2박 3일 일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성공해주택인 왕토희집짓기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봉송왕토희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34-0223 / 팩스 : 0671)34-1237

왕토희 토굴

생명의 친화성을 가진 흙중의 흙 - 왕토희! 왕토희 토굴은 오랫동안 한곳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맑은 정신과 편안함을 주며 생체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

왕토희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낄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질”인 것입니다.

.....

● 왕토희 토굴 ① 3평형 ② 5평형

「선조님들의 토굴방 그대로」

왕토희의 효능을 느끼지 못하시면 전액 환불하여 드리고, 「무료관리」를 약속드립니다.

왕토희 토굴 사업본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H: 017)585-6045
FAX: 0551)283-6531

'나무아미타불'을 염(念)하면 누구나 극락왕생할 수 있다!

극락왕생을 위한 염불의 의미와 공덕

극락왕생을 위한 가장 손쉽고 공덕이 큰 수행법!

▶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가?
▶ 염불을 통해 극락왕생한 사람들의 이야기!
▶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극락왕생할 수 있는가?
▶ 염불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128쪽, 값 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종로구 청진동 6번지 T. 720-9372, 3